

오늘의 날씨와 생활

8월 6일 화요일 음 7월 6일 (13물)

기상정보

호리고 비



제주도는 차차 흐려지며 오후부터 비가 내릴것으로 전망된다. 아침 기온은 25°C로 시작해 낮 최고 기온은 30~32°C로 예상된다. 낮부터 바람이 강해질 것으로 보여 시설물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오전	강수 확률	오후
30%	제주	60%
30%	성산	60%
30%	고산	60%
30%	서귀포	60%

해돋이 05:49	달뜨기 11:17
해질미 19:30	달지기 23:13
물때 만조 02:16	간조 09:01
14:47	21:12

주간예보 <문의:국번없이 131>

내일	호리고 비	26/32°C
모레	구름 많음	26/31°C

생활·안전 기상정보

식중독지수	자외선지수
경고	높음

월드뉴스

中매체들 “한국 민중, 日아베정권에 분노”

대규모 집회 주목해 보도

중국 관영 매체들은 일본이 수출심사 우대 대상인 ‘백색 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하자 한국 민중이 대규모 집회를 통해 일본 아베 신조 정권에 분노를 표출했다고 전하며 주목했다.



아베정권 규탄 촛불문화제.

한·일 갈등과 관련해서도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 조치에 한국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대응에 나섰다며 사태 확산을 예의 주시하는 분위기다.

서울의 일본 대사관에서도 ‘사과하라’를 외치는 집회가 있었다고 전했다.

5일 관찰자망(觀察網)은 일본에 ‘백색 국가’ 배제를 당한 뒤 한국 민중이 분노했다는 제하의 기사에서 1만5000여명의 한국 민중이 지난 3일 집회를 열고 ‘백색 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한 일본정부의 결정을 규탄했다며 자세히 보도했다.

중국중앙TV는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아베 정권의 일방적인 태도에 분노했다고 한국은 일본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방식으로 맞서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 방송은 한국의 당·정·청이 일본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1조원 이상의 예산을 반영하기로 하면서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매체는 “한국 민중이 정의 집회를 통해 아베 총리를 규탄하고 한국에 대한 무역 규제 철폐를 주장했다”면서 “광화문 도심 등에 모여 행진했으며

신화통신도 한일 마찰이 커지고 있다면서 일본의 규제 조치 결실이 굳어지자 한국도 힘에는 힘으로 대응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리일보 발행인·인쇄·편집인 김용구 편집국장 김기현
 6318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 154 대표전화 064-750-2214
 광고접수 본사 750-2828 / FAX 752-7448 서귀포지사 732-5552 / FAX 732-5559
 인터넷 서비스 http://www.ihalla.com e-mail: hl@ihalla.com
 기사제보 750-2214 / FAX 752-9790 구독신청·배달 750-2330
 1989년 4월 22일 창간 / 등록번호: 1988. 12. 5 등록번호: 제주, 가00002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한라칼럼



강상주 전 서귀포시장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니 정말 덥다. 낮에는 너무 더워 오전에만 일하러는 데 아직 초보농사꾼이 그래도 되나 하는 생각도 든다. 정작 힘쓰는 일을 조금만 하면 땀이 비 오듯 한다. 아마도 이렇게나 날씨가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아닌가 싶다. 기후에는 비·온도·바람이 핵심요소인 것 같고 태풍도 변수인 것 같다. 특히 농·어업인이나 현장근로자들에게는 아직도 날씨가 일하는데 결정적 요인이다. 나도 서투르지만 경협 속에 느낀 점들이 몇 가지 있어 생각해본다.

금년 7월 정마 때 일이다. 일기예보상 며칠 후면 비가 200mm 이상 제주 남

기후예보 단상

부에 예상된다고 했다. 우리 하우스에는 지하수 관정이 없어 수돗물을 쓰는 곳이다. 그래서 비가 크게 온다고 예보되면 빗물이용 저수조의 물을 나무에 뿌려 비워놨다가 다시 빗물로 채우는 시스템이다. 소양강다목적댐처럼 나도 물 관리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막상 비는 예보보다 10분의 1도 안 왔다. 큰 비용 들어서 작년에 빗물저수조를 설치했는데 결국은 비싼 수돗물을 받아 써야한다. 국자성 호우라서 그렇다 하면 초점이 애매해진다. 하여간 강수량 예측이 맞지 않으면 농민들은 애로사항이 많다.

한라봉 비기림하우스를 하는데 몇 년 전 까지만 해도 우리 동네는 따뜻한 편이라 하우스 윗부분 지붕에만 비닐을 덮고 옆면에는 그물망만 쳐서 농사를 지어 왔다. 그런데 몇 년 전 폭설과 함께 며칠 동안 낮에도 영하의 날씨가 계속되면서 결국 냉해로 나무도 여러 그루 죽고 수확을 앞둔 열매도 얼어서 애써 키운 한라봉을 폐기 처분 해야 했

다. 그래서 이듬해 봄에 하우스 옆면에도 그물망과 비닐로 둘러서 기온 강하에 대비했다. 열풍까지 설치해야 하는데 비용도 문제지만 기름까지 때면서 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에 그건 나중에 미뤘다. 무거운 비닐하우스는 추운 겨울에도 낮에는 기온이 올라 별 이상 없지만 밤이 문제다. 최저 기온이 -1°C까지는 별 문제가 안되지만 -3°C 이하로 내려가면 큰 문제다. 기상청의 예보는 우리 지역의 경우 웬만하면 -3°C 이하로 잘 내려가지 않는다. 그런데 예보가 맞지 않으면 농민들은 애로사항이 많다. 기후예보에 의하면 -3°C 이하일 때도 여러 번 있었다. 실제로 영하 이하로 며칠간 내려간다면 무슨 수를 강구해야만 한다. 보통은 드림통을 구해서 톱밥이나 통삼나무를 잘라 물을 때기도 한다. 즉 최저기온 예보가 정확히 -1°C면 물을 댈 필요가 없지만 -2°C 이하면 나무도 죽고 열매도 얼기 때문이다. 주로 1월 달에 서너 번 이런 경우를 치르

기온 1°C 차이에 민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많은 농가들은 휴대폰에 날씨에 관한 기상 ‘앱’을 여러 개 깔아서 대비하고 있다.

바람의 세기와 방향도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대체적으로 5월~10월은 동남풍이, 11월~3월은 북서풍이 주로 분다. 서귀포 지역의 경우 북서풍이 불면 서부지역에서 강풍까지는 바람이 세고 서귀본동과 효돈동 지역은 바람이 약하다. 동남풍의 경우는 정반대다. 아마도 한라산과 오름 등으로 인해 지역별로 기압골이 형성되기 때문이 아닌가한다.

기후문제는 어느 한 분야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모든 산업이 날씨를 예의주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기상과학자들은 어떤 변수들에 의해 온도·비·바람이 결정되는지 잘 제공해 주면 좋겠다. 그리고 날씨 관련 정보가 선진국에 비하여 적게 방송되는 것 같다. 우리나라 기상청 예보만 알면 정확하게 날씨가 예측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본다.

열린마당

‘제1회 섬의 날’ 행사를 알고 계신가요



강재식 제주시 추자면사무소

섬의 날(8월8일) 제정에 따라 ‘제1회 섬의 날’ 기념행사가 중앙부처·지자체 공동주관으로 범국가적인 행사로 개최하여 미래의 잠재 성장 동력으로서의 섬의 가치를 높이고 중요성을 기념하기 위해 8월8일부터 10일까지 3일 동안 전라남도 목포시 삼학도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필자가 타 지역에서 개최 되는 ‘제1회 섬의 날’ 행사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2년 정도 추자면사무소에서 근무하며 섬에 사는 사람들의 고충을 어느 정도 알게 된 점도 있다고 하겠다. 섬에서 살다보니 불편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닌데, 그 중에서도 특히 여객선의 안정적인 운항에 대해서 말하고 싶다. 여객선이 정상적으로 운항 되어야만이 정상적인

섬 생활과 경제활동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것 같다. 이렇듯 섬에 대한 접근성 개선은 섬 발전의 최대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다.

연륙교가 없는 먼 섬의 경우 여객선이 섬에 접근 할 수 있는 유일한 교통수단이다. 그런 의미에서 여객선은 육지와 섬을 연결하는 도로라고도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섬으로 통하는 도로인 여객선 시스템이 매우 열악하고 불안정 하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우리나라 5대 항로인 울릉도, 백령도, 거문도, 흑산도(홍도), 추자도로 통하는 항로는 풍랑과 안개, 배 수리 등으로 인하여 여객선 결항률이 1년에 3개월이 넘을 정도라고 한다.

더욱이 겨울철에는 결항률이 더욱 높아져 섬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이다. 이번 ‘제1회 섬의 날’ 행사를 통해 섬 주민들의 간절한 소망인 여객선 공영화 등 섬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하여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세심하게 살펴보는, 일회성 행사가 아닌 뜻깊은 ‘섬의 날’ 행사가 되기를 믿고 싶다.

만 7세 미만으로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김미순 제주시 애월읍사무소

2018년 9월 도입된 아동수당제도는 소득·재산 하위 90%가구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이후 ‘아동수당법’ 개정(‘19. 1. 15. 개정)에 따라 2019년 1월부터는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계층의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다.

9월부터 아동수당 연령이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라 9월에 추가되는 아동은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세가 되어 중단되었던 2012년 10월생부터 2013년 8월생이 해당된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세 생일이 도래해 수당지급이 중단됐던 경우는 아동수당법상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재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이때 현재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

이 이전 신청 당시와 달라진 경우에는 반드시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이전에 아동수당을 받았으나 이후 받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아동수당 지급 제외요청서’를 작성하여,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사진을 찍어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보내면 된다.

그동안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직접 신청해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2019년 9월 기준 만 7세 미만이 지급대상이며, 신청한 달부터 지급이 된다.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던 가구에는 신청방법을 담은 안내문이 아동 주소지로 우편 배송될 예정이다.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에서도 신청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아동수당 연령 확대가 좀 더 많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되길 희망하며 모두 신청하기를 바란다.

천연염색 배우실 분 환영함 이미애 갈옷
여름맞이 고객 감사 40~50% 특가세일

천연염색 갈옷, 생활한복, 법복, 단체복, 각종 소품

이미애 064. 725. 0229

오일뱅크, 연복로, 메가박스, 신제주, 차세상, 차과, 인천문화당, 해창국, 올레마트, 태권도장, 천지담배, 이미애갈옷, 피아미APT, 이도초등학교

725-0229

세상의 모든 돌 이야기 **수입대리석, 화강석, 라임스톤 판매 및 수입대행**

베트남 현무암 **조경건축토목용 경계석**
완제품 직수입 판석, 부정형난석 등

현무암 경계석
 120×150×500 6,500/개당
 150×150×500 7,500/개당
 170×200×500 12,000/개당
 200×250×500 15,000/개당

현무암 판석
 600×900×30 21,000/㎡
 600×1200×30 21,500/㎡

마블인은 30년동안 이태리, 스페인, 터키 등 세계 각국의 대리석 광산들과 직거래 하며 자체 광산을 개발, 수입, 가공, 판매하는 수입석 전문 회사입니다.

마블인 하치장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342 T. 064)713-6866 / 010-3873-7650
 공 장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복촌리 952 E-mail : marble2017@naver.com / www.marblein.co.kr